

# 시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 강임준 군산시장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 물류비 · 인력양성 등 지원 대책

강임준 군산시장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발표'에 대해 27만 군산시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강임준 군산시장 신영대 국회의원 및 김영일 시의회 부의장이 참석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따른 그 동인의 진행사항과 향후 안정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산업부, 고용노동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재가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강 시장은 "가동중단 이후 시민불만 해소 중앙정부와 국무총리 면담과 성명서 발표 등 정상화 재가동을 위해 수 백차례의 목소리를 냈으나 5년의 합계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현대중공업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재가동을 하겠다고 발표하게 되어 늦었지만 27만 군산시민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연간 10만톤 규모의 블록생산을 시작으로 LNG·LPG탱크와 의장으로 확대하고 완전하고 지속적인 공장 가동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향후 신조까지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জানান과 같은 가동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및 장비 보수를 위해 1천억원 규모로 시설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며, 협력업체 모집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정상화까지 초기 어려운 협력사에게 물류비 지원과

600~800여명의 조선업 인력양성을 위해 예산확보와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협력을 통해 모집부터 교육훈련, 취업 연계까지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협약까지 신영대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면서 "현대중공업 최고임원진과 주기적으로 만나 재가동을 위해 진행 실무협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고 지난해 11월 국가예산 확정 마지막 단계에서 재가동에 필요한 인력양성 예산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과 함께 중소형선박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사업으로 선박 기자재의 신뢰성 향상으로 중소형·친환경 기술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10,000톤급 중량물 운반 지원선 건조를 통해 에너지 기자재 운송 등의 경쟁력 확보와 관광선·합정 등 공무·국방 목적으로 연안에 운항되는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MIRO)를 구축 등 조선산업 인프라 구축에 힘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군산=남현봉기자



익산 남부권 일대에 추진 중인 민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

## 도내 대표 친수도시 거듭날

### 익산시, 교통·환경 다 갖춘 민경강 수변도시 조성 '속도'

익산 남부권 일대에 추진 중인 민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편리한 교통과 친환경 요소까지 갖춘 민경강 수변도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인근 지역 인구 유입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지난해 말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타당성 검토 조사 계약을 체결하고 최근 현장 조사까지 완료했다.

타당성 조사 결과는 오는 7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 절차와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기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24년 말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부권 택지개발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민경강 부지 120만㎡ 규모에 수변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청년층과 은퇴자를 위한 공동주택과

은퇴자 타운을 조성하고 의료와 문화 시설, 초등학교, 공원 등의 인프라가 포함된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주거단지가 조성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전주와 김제, 군산 등 인접 도시인구 유인을 위한 배후도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는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수요도 조사에서 67.4%가 이번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현을 시장은 "지리적 환경적 이점을 두루 갖춘 민경강 수변도시가 조성되면 도내 대표 친수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에게 살기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득훈기자

##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유치 '맞손'

### 익산시 · 교육청, 업무 협약

익산시와 교육지원청이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유치를 위해 손을 잡았다.

시와 교육지원청은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익산 유치와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이수경 교육청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서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유치를 위한 컨설팅, 위기학생 조기 발굴, 안전망 연계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센터 유치를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중앙부처 설득 및 정책 제안, 정치권 및 산·학·연과의 업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국회 예정위 마지막 단계까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예산확보에 노력한 결과 여성가족부에 호남권 건립



익산시와 교육지원청이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유치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을 위한 기본설계비 예산이 반영되었고, 디딤센터 익산 유치를 위해 민관 협력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최근 정서 및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만9세~18세)이 증가하고 있어 디딤센터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호남지역에는 센터가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도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 지율이나 우울감, 비행·문제행동(도박중독, 가출경험)을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호남권 청소년들도 정서·행동문제 증상 다양화와 심각성으로 전문 상담치료가 필요하지만 연계 치료는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이득훈 기자

## 익산시, 대기환경 개선 전기자동차 495대 보급

익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으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

시는 올해 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승용차 234대와 화물차 261대 총 495대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별 차등 지원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1대당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법인·기관 지원 시에는 일반개인이 지원하는 지방비의 50%만 지원한다.

1톤 전기화물차는 1대당 2천2백만원

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도내에서 생산된 전기화물차에 한해 지방보조금 1천만원을 20대 한정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통적으로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익산시에 30일 연속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로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전기승용차·화물차 접수는 4월 15일까지이며,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세대당 1대, 법인 또는 단체당 1대까지 지원한다.

【익산=이득훈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집중

군산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지속적으로 발생(가금 45건, 야생조류 37건)했다. 특히 지난 설 명절을 기점으로 가금농장에서 지속 발생하는 등 어느때보다 가금농장 차단방역이 중요한 시기가.

군산에는 지난 2017년 고병원성 A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저병원성 A가 검출되는(민경강 야생조류 3건) 등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는 고병원성 A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별 전담공무원 지정, 철새도래지 소독, 거점소독소 추가 운영, 시료검사와 출하 전 정밀검사 등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남현봉기자

#### 군산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추진

군산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인에게 목욕의자, 전동침대, 보행차, 대화용 장치 등 36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가능하며, 대상자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과 전라북도 장애인보조기기센터에서 방문해 자격기준 검토 후 시에서 보조기기를 구입,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기존 35개 품목에 개인 비상 경보 시스템(낙상알림기) 품목이 추가됐다. 낙상알림기는 낙상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보호자에게 알람 신호를 제공해 낙상 사고를 빠르게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군산=남현봉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